

# 농업용 드론, 성능 높여 영농현장 투입

### 도, 드론 검정테스트 실시로 개선점 도출... 방제·시비·파종 등에 활용 농업 생산성 향상 기대

전북도는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전북소재 농업용 드론 기업에 대해 농업용 드론 검정테스트를 12일 국립농업과학원 내 드론 주행사험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와 실용화재단이 지난해 8월 '농업용 드론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해 도내 드론 기업의 농업용 드론에 대해 무료로 검정 테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내 농업용 드론기업은 농업용 드론 종합검정 전에 사전테스트를 진행하고 지도·점검 받음으로써

검정에 대한 비용절감 및 기체 개선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검정 테스트를 받은 메타로보틱스(주) 관계자는 "실제 종합검정 전에 검정 테스트를 받음으로써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지원 제도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용화재단은 방제, 시비, 파종 등 농업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농업용 드론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종합검정을 받은 농업용 드론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지원

됨으로써 농업용 무인 멀티콥터, 헬리콥터 등에 대한 농업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인에게 농업용 드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드론을 구입할 때 공급기준가의 80%까지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구입비 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의 농업용 드론 검정테스트 지원 활성화를 통해, 도내 농업용 드론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하는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전자부품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전북도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해서 농생명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생명 SW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전주 만성지구 마지막 실수요자 택지 공급

### 전개공, 경쟁입찰 방식으로 유찰 또는 미계약시 선착순 수의계약 가능

전북개발공사에서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잔여 점포용 단독주택용지(4필지)에 대해 오는 17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한 지난달 경쟁입찰로 공급, 유찰된 종교용지(2필지), 의료용지(1필지)에 대하여 재입찰 공급하며, 이번에도 유찰 또는 미계약시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지난 2월 만성지구 준공으로, 즉시 소유권이전

이 가능하고, 아파트 및 법조타운 차공과 단독주택의 입주자 본격화됨에 따라 지금이 매입적기이다.

이번 점포용 단독주택용지(4필지) 공급규모는 면적 289.7~296.2㎡에 공급예정가격은 1억8000만원정도이며,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층수는 3층이하로 적용되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종교용지 2필지 공급규모는 면적

1,923.2~2,565.8㎡에 공급예정가격은 10억5700~15억6500만원이며,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최고층수는 3층이하로 적용되고, 용도지역은 제1종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의료시설용지(1필지) 공급규모는 면적 3,478.9㎡에 공급예정가격은 34억 9000만원이며,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60%, 용적률 230%, 최고층수는 7층이하로 적용되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점포용 단독 택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최초로 공급하며 1층 등 저층부는 점포나 사무실을 들이고 2~4층은 주택으로 지어 직접 살거나 세를 줄 수도 있는 등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수요가 대거 몰릴 예정이다.

이번 택지 공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dc.co.kr)에서 공급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063-280-7421(보상판매사업단)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농촌진흥청, 밀수농약 사용 특별단속 나서

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시기인 5월에 과수 주산단지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과수 주산단지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비대축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 방제용(아바멕틴 유제) 밀수농약 공급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

이다. 만약, 적발될 경우 무등록(밀수)농약 판매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단속에 앞서 과수 주산단지에 '불법밀수, 가짜농약

사용금지' 리플릿 2만부와 농협경제지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수막 80개를 설치해 알렸다.

또한, 밀수농약 유통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항만 5개 국제여객터미널(인천 제1, 인천 제2, 평택, 군산, 부산)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을 배치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특히, 과수 작목반 교육, 전국 농약 판매업소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밀수농약 유통근절과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육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한전 전북본부, FIFA U-20 월드컵 대회 전력공급 철저 준비 시행

2002 한일 월드컵의 열정을 다시 불러 일으킬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오는 20일 한국 VS 가나, 아르헨티나 VS 잉글랜드 대표팀들 경기를 시

작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경기가 펼쳐진다.

FIFA 주관 행사로는 두 번째로 큰 FIFA U-20 월드컵이 전북에서 개최

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해 전북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전북본부의 전기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전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락현 본부장과 정관영 사업처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력 확보 특별팀을 조직해 U-20월드컵대회가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성공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인재용 기자

# 롯데백 전주점, 여행용 가방 대전

### 크로스백·보스톤백 등 3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

롯데백화점 전주점 15일부터 21일까지 6층 이벤트 홀에서 전주점 최초 '여행용 가방 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여행용 가방 대전은 썬소나이트, 엘르, 몽키바, 헤이즈 등 유명브랜드가 참여하며 캐리어가방, 백팩, 크로스백, 보스톤백 등을 3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캐리어가방은 21인치(5만9,000원), 26인치(7만9,000원), 30인치(9만9,000원) 세가지 대표상품이 구성돼 있고, 엘르는 8만9,000원짜리 백팩을 2만5,000원 특가로 판매한다.

또한 캐나다 국민가방인 헤이즈 가내용 캐리어 가방을 5만9,0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여행관련 상품인 모자, 선글라스, 양산 등 패션잡화 상품 등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강석훈 잡화플로어장은 "전주점 최초로 진행되는 여행용 가방 대전은 6월부터 시작되는 바캉스 시즌 상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평상시 눈여겨 둔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전북농협은 지난 11일 전북 관내 하나로마트 180개를 대표하는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전북도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하나로마트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및 6차산업자, 마을기업 등 농업인 생산기업 상품을 적극 취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곽점용 협의회장은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착한 가격에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

매가 확대될 수 있는 소비자-농업인 상생 하나로마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하나로마트 사업은 판매농협 구원의 주추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이끌어 내는 첨병이 될 것"이라며 "또한, 안전한 농식품 공급으로 소비자와 농업인이 모두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규모화 된 하나로마트 운영 농협이 가입 대상으로 현재 14개 농협이 가입돼 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